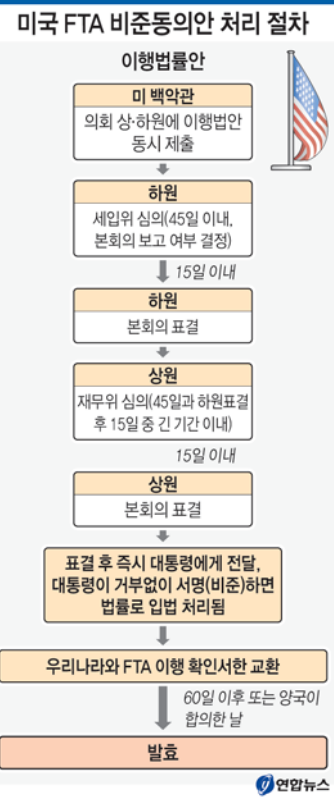


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



13일 한미정상회담전 통과 가능성...한국내 처리도 빨라질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안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

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 인 통과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쳐지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볼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로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 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즉각 FTA 이행법안 제출을 환영했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내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발효를 앞두게 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연립뉴스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했던 탈북자들이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청진 부근에서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했고, 같은날 13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부근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日표류 탈북자 9명 입국 1명 “백남운 손자” 주장

노벨 물리학상에 펄무터·슈미트·리스

초신성 연구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초신성 연구로 우주의 가속 팽창 성질을 밝혀낸 사울 펄무터(52·미국)와 브라이언 P. 슈미트(44·호주), 에덤 G. 리스(42·미국)에게 돌아갔다.



사울 펄무터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리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4일(현지시간) 이들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팽창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사실을 규명해 “미지의 대상인 우주의 장막을 걷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다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이 4일 정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후쿠오카(福岡)항 대한항공 KE 788편을 타고 온 이들은 비행기 문이 열린 지 10여분 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안 게이트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모자 또는 후드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얼굴을 완전히 가려 성별과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었으나 2명은 체구로 미워 어린이로 추정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동안(東岩) 백남운(白南雲)의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 “한미FTA 美의회 통과후 10월 처리”

한나라당은 미국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4일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여야

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교통상통일위원회장은 “미국보다 반보 정도 뒤에 가겠지만 너무 늦어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 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한나라당은 오는 18~19

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바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10+2 재제협상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재제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취재진 19명 일본 방사능 노출” 장병완 의원 주장

지난 3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지역에서 취재활동을 한 KBS 취재진 중 19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4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지역 KBS 출장자 79명에 대한 연색체 검사 결과, ‘이상 연색체’ 수가 3개 이상인 방사능 피폭자가 19명이었다. 연색체 검사에서 이상 연색체 수가 8개로 나타난 경우는 1명이고, 6개는 2명, 5개는 1명, 4개 6명, 3개 9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KBS는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함에도 방사능 사고 관련 매뉴얼은 부실했다”며 “KBS는 원전 폭발사태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험지역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리를 구하라’는 식의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KBS는 방사능 누출 지역 취재 시 기본적인 장비인 선량계도 지급하지 않았고, 취재진이 이미 방사능에 노출된 후인 3월18일에야 선량계 사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림부 “향후 15년간 농어업피해 12조2천억”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 분야는 향후 15년간 12조2000여억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

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683억원,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농어업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

이 12조2252억원, 연평균 8150억원이었고, 수산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이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1인당 GDP 2015년 3만달러 돌파

IMF 전망, 내년 세계 28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에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2016년에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GDP를 인구로 나눈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15년 3만1733달러를 기록하면서 3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해 2만756달러로 2만달러에 겨우 턱걸이한 뒤, 올해 2만374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 2만5948달러, 2013년 2만7702달러, 2014년 2만

965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2016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3948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예상액 2만5948달러는 IMF가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한 34개국 가운데 28위다.

내년 기준 34개 선진국 가운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2만6325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2위 노르웨이(9만8682달러), 3위 스위스(9만216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1 Heungbu Festival

"우애 · 나눔 · 보은 · 행운"

제19회 남원시 흥부제

흥부제

2011. 10. 8(토) ~ 10. 9(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

신판놀이 "흥부가" / 프린지페스티벌 "슈퍼스타 HB" / 어린이뮤지컬 "흥부전" / 흥부전 상설체험마당 / 남원농악경연 / 농악개인놀이한마당

● 주최 : 남원시 ● 주관 : 흥부제추진위원회 ● 후원 : 국민민속국악원